

책, 마음 길을 내다

최근 출간된 어느 작가의 산문집은 아예 이름을 누구의 '산문집'으로 지었다. 측근 중 몇몇이 정확한 제목을 알아내지 못한 채 작가의 이름을 단서삼아 "~가 산문집을 냈다며"라는 문의를 해왔다. 있는 그대로 제목을 알려 주었는데 그 답이 시원찮다고 여겼는지 반문하는 것으로 이해했는지 물어왔던 사람마다 재차 묻는다. 산문집을 산문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뭐가 이상하다고 자꾸 묻는 건지 두어 번 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 귀찮게 여겨졌다. 제목을 알아낸 기쁨보다는 다소 허탈해 하는 질문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목 참 잘 지은 책'이라 생각했다. 제목의 역할이란 눈길을 끌고, 호기심을 안겨주고 결국은 들춰보게 하는 것. 눈으로 책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 작가의 산문집은 이미 독자의 궁금증을 일으켰다. 두 번 물어봄으로써 외우기까지 했을 테니.

소설가 김남일의 산문집 《冊》도 이와 비슷하게 이름 덕을 보던지 값을 치루던지 둘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책을 책이라 부르는데 누가 뭐라 할까만 '冊'이라는 한자어 표기의 차별이 대화 속에서는 별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남일의 책 주세요"라고 말할 때의 혼란이 짐작되기 때문이다.

《冊》은 소설가 김남일의 첫 번째 산문집이다. 작가는 자신의 평생 걸쳐 '산, 책, 길' 각각의 이름을 붙인 세 권의 산문집만을 내고 싶다 밝혔다. 산과 책과 길에 관한 글. 그 중 첫 번째로 빛을 보게 된 이 책은 작가의 삶 언저리에서 건진 사연들이다. 물론 어딜 펼치나 그 중심은 책 이야기다.

책 : 아주 오래된 농담

난리 통에 사람 실어 나르는 열차처럼 꾸역꾸역 사람들을 태우는 출근길 지하철에 올라 타 있을 때면 과연 내가 실재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사지가 따로 구겨져 몸에 걸친 옷마저 무겁게 느껴질 때는 가방에 억지로 넣은 책 한 권의 무게가 어찌나 버거운지 굳이 바쁜 외중에 챙겨 나온 자신이 원망스럽다. 출근길은 그렇다 쳐도 그나마 한가한 퇴근길, 아줌마들 기세에 눌러 한자리 꿰차지 못한 날은 하릴 없이 사람 구경하다가 PDA 하나 달랑 들고 유유자적 즐기는 사람이 부럽다.

직업이 작가인 만큼 김남일이 생각하는 책 생산과 유통 구조의 변화는 아닐로그적이다. 아직 e-book이 보편화되기 전 그는 동료작가가 벌써 신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에 놀라워한다. 글 쓰는 거야 작가 마음일 테니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고 자신했지만 내심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바늘로 제 살 찌르듯' 잉크를 찍어 원고지를 한 칸씩 메워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리고 문학은 그렇게 성스러웠는데... 그는 안타까워한다. 어쩔 수 없이 그도 기술의 발달과 더 빠르게 변하는 세태에 적응하고자 타자기를 구입했다. 자신의 작업 환경이 원시적이라 놀려대는 후배의 힐난을 받은 후다.



《册》 김남일 지음 | 문학동네 | 255쪽 | 값 8,500원

그나마 운지법을 챙길 여유 없이 두 손의 검지만으로 작품을 생산해 내던 그에게 이번엔 신형타자기가 나타난다. 신형 타자기의 속도에 놀라워하는 것도 잠시, 밤마다 드르륵 거리는 소리 때문에 그의 방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자 여전히 원시인 운운하는 후배에게 자문을 구해 워드 프로세서라는 연장을 구입했다. 결국은 그 연장의 수명이 2년이 채 되지 못하던 해 그는 컴퓨터에 입문하고 ‘숨이 턱에 받치도록 쫓아온’ 그의 업그레이드 역사는 다소 희미해진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고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는 칼 마르크스의 철의 법칙을 서서히 부정하던 작가. 이제는 완전히 믿고 있는 걸까. ‘형식이 내용을 규정 한다’는 전복된 명제를. 독자인 우리에게도 책의 변화는 관심사다.

내 마음의 불온서적

‘불온’의 사전적 의미는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 마치 그 이치처럼 ‘불온’이라 규정짓는 사회의 편견과 억압도 따져 물을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저자가 책에서 다룬 불온서적에는 네루다의 시집도 올라와 있다. 서슬 퍼런 유신정권 시절. 제 머리카락 하나 마음대로 못하던 열혈청춘들의 무너진 마음에 파블로 네루다라는 시인이 자리한다. 노벨문학상 작가라는 명성도 검열의 도마 위에 올라갔고, 먹으로 등성등성 감춰진 시집에 청춘의 호기심은 증폭된다. ‘자유’ ‘독재’ ‘혁명’이라는 기대단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지 않았지만 불온성에 한껏 고취된 불온청년의 눈에는 당연히 ‘불온서적’으로 분류돼 버린다. 그의 말마따나 ‘불온한 시대는 불온한 인간을 양산’했

던 것이다. 은유의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그가 지금 추억하는 것은, 그리고 그가 줄줄이 열거한 불온서적 - 찰스 라이트 밀스의 《들어라 양키들아》, 님 웨일즈의 《아리랑》, 잉계 솔의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들을 다시 들추는 것은 젊은 혈기를 다스릴 수 있게 해준 시대의 유산에 대한 고마움이 아닐까. 그리고 책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닐 런지.

쓸데없이 내가 읽은

홍수처럼 쏟아지는 책들을 바라본다. 대형 서점의 구석구석마다 독자의 눈길을 지루하게 기다리는 책이 얼마나 될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 각자의 책장에도 언제 사다 놓은지도 모르는, 누구에게 받은 건지도 모를 책들이 먼지 낀 모서리를 밖을 향해 내민 채 꽂혀 있다. 굳이 작가 김남일의 추억을 들 여다보지 않아도 우리 자신 책방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한 권의 책에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수도 있다. 책에서 낯선 책을 발견하고 다시금 그 책 속에 자신만의 책을 새겨 넣는 것. 책이 간직한 순환의 이치다. 《册》에 열거된 저자의 도서 목록 하나하나마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애써 맞장구 칠 필요는 없겠다. 단지 자질구레하거나 또는 번득이는 성찰의 기록을 그저 읽으면 그뿐이다. “바보들이 아니더라도 책에 관해 서라면 누군들 할 말이 있다”는 저자의 말처럼 무언가 책 속에서 자신만의 말을 찾아내는 현명한 독자가 되고픈다. **김지**

송보경 기자